

한인뉴스

2015

3

VOL. 225

haninnewsinni@gmail.com



SAMSUNG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655 ⁺¹	매일
		KE626	0755	1655	월,목,일
인천	서울	KE627	1535	2040	매일
		KE625	1920	0040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Experience

THE NEW SHOPPING PARADIGM

롯데쇼핑 애비뉴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쇼핑몰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 애비뉴만의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고객님의 쇼핑을 더욱 합리적이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우수 고객님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은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 지금 롯데쇼핑 애비뉴에서 경험하세요.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EVERYDAY CASHBACK

최소금액 이상 구매시



LOTTE Gift Voucher

IT'S 25 - 29 MARCH 2015 PAYDAY

DISCOUNT
UP TO
70%

PAYDAY SPECIAL
10%
ADD
DISC.

BUY 1 GET 1 FREE | 식음료 및 기타 매장



LOVE BEAUTY CLUB

LOVE Beauty Club

특별 뷰티 케어 패키지
화장품 & 향수 구매시 10% 할인
최대 2백만 루피아 상품권 증정



롯데 멤버스

롯데 쇼핑 애비뉴 및 롯데 계열사,
기타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추가 혜택

ART & CULTURE

Edutainment Center

DISCOVER THE TRUE YOU

JOIN NOW

ARTURE CENTER - 3F
021 - 2988 8640

Art & Culture Center

육아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 키즈 클럽 / 발레 /
춤 / 음악 / 어학 / 모델링 / 연기 /
회화 및 공예 / 바틱 / 꽃꽂이 / 보석 / 디자인 /
요리 교실 / 명상 / 요가 / 필라테스 /
호신술 / 파이낸스 / 리더쉽 / 심리 상담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대상 수상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ST. JAMES

ZEN COOK

세제가 스며들지 않는 똑배기,
안전한 젠콕으로 바꾸세요!

직화OK! 전기레인지OK! 전자레인지OK! 오븐OK! 인덕션OK!
(인덕션전용제품 ONLY)



수분흡수율 제로 친환경 무연유약 강한 내구성 강한 내열성

세인트제임스는
친환경도자기 젠한국의 인도네시아 브랜드입니다

젠 콕
시리즈



도자기똑배기



잉글리쉬기든



노르딕



스칸디나비아



오렌지전골



쿠링베이커



캘리코 곰솔

Hankook Ceramic Indonesia

SHOW ROOM Lotte Shopping Avenue Lt.2 021 2988 9214~5 Pondok Indah Mall II Lt.3 021 7592 0615 Lippo Mall Kemang Lt.2 021 2952 8529~30 Lippo Mall Puri LG(St.Moritz) 021 2911 1197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제 96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롯데 에비뉴)
/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 칼럼/ 베니 장군의 그림자 <김문환 논설위원>

나눔을 실천하는 한인사회

제 96 회 삼일절 행사

한국투자자 대상 세미나

우리 사우다라운행 합병식

인도네시아 해양개발 전략 세미나

대한민국을 떠나 인도네시아의 쇼핑몰 중앙에서
대한민국만세를 외쳐보았습니다.

국한문 혼용체의 독립선언문을 모처럼 읽어 보았습니다.

독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선언하고 축하해 버리는
그날의 국기축제를 그려보았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동물적 사회진화론에서 벗어나
민족자결주의의 흐름을타며
공동의 성취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그대를 떠올리며
96주년의 삼일절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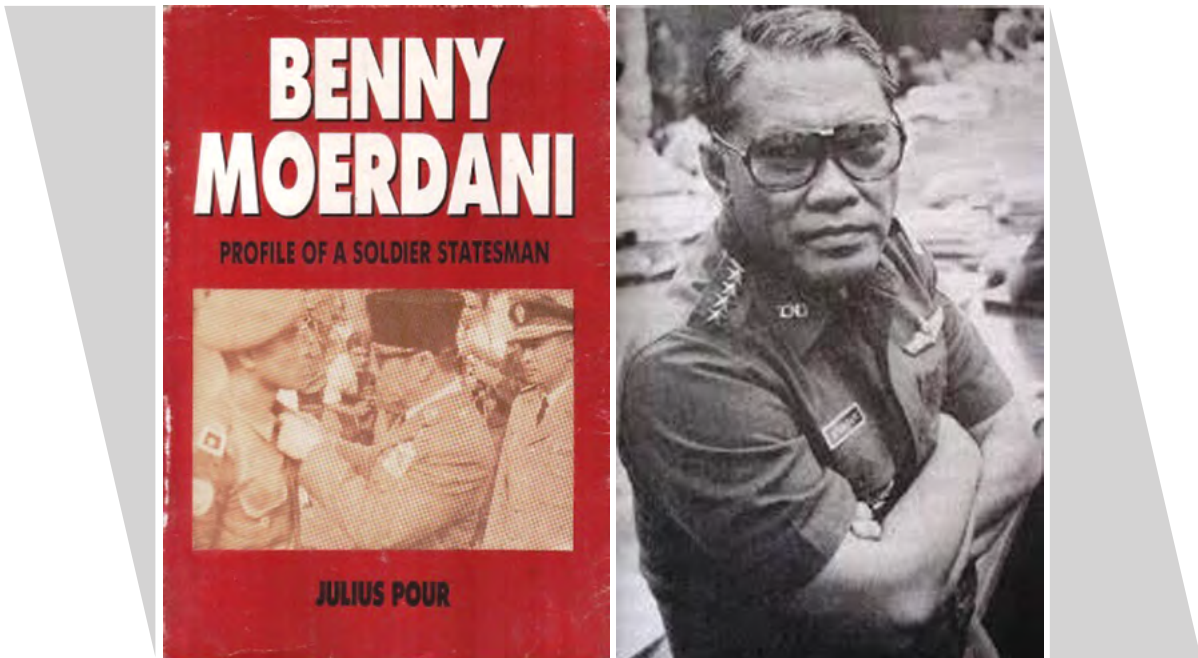
편집장 홍석영

감사패 전달	Jalan-Jalan Jakarta / Cemara 6 Galeri
코린도, 동티모르 녹화 사업지원	-Museum <사공경>.....44
상상빌리지	
2015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에퀼 Bottling Plant
JIKS 소식	<오명희>.....48
JIS 소식	
	집단 속의 개인 <이윤영>.....50
	법률해설/ 분쟁해결4<이승민>.....54
2015 2월 경제브리핑.....28	
	내 마음의 뜰 / 아내가 있어 행복한 아침
에세이/힐링이	<시/그림:이태복>.....59
필요하세요?<김자형>.....34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지상갤러리<김선옥>.....36	<허영순>.....60
족자카르타 탐방기<이인상>.....38	화 도 소62
3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2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베니 장군의 그림자

김문환/논설위원

1993년 6월 자카르타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 그 넓은 행사장에 입추의 여지없이 방문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불과 3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직에서 물러난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장군의 자서전 ‘애국군인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Prajurit Negarawan)’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이었다. 국가가 난세에 처할 때마다 그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 영웅적 활약상을 보였던 장군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을 손에 넣기 위해, 또는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 고관대작부터 일반시민들까지 다투어 몰려든 것이다. 정권 실세인 무르디오노(Moerdiono) 국가비서장관 조차도 자리를 잡지 못해 입구에서 서성거릴 정도였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2004년 8월 29일, 군사특수전의 대부이며, 정보권력의 기획자로서 국내 정치를 주도했던 노병은 지병에 시달리다 7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4년 전 란짜마야(Rancamaya)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단신(短信)이 언론에 잠깐 비친 이후 끝내 비보를 전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군은 1주일 동안 조기를 게양하여 그들의 '영웅'을 애도하였으며, 카톨릭 신자였던 그를 국가의 제2인자로까지 과감하게 끌어 올렸던 수하르또 전 대통령, 재야 지도자로서 특별한 친분을 쌓았던 구스 두르 전 대통령, 소녀시절 부친으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 받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지켜 보았던 메가와띠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베니 장군이 부통령으로 가는 길목을 끝내 차단하고 '탈 베니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던 빠라보워 장군에 이르기까지 내노라 하는 전 현직 국가지도자들이 그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고개를 숙여 애도하고 있었다.

제2대 주한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베니 무르다니 장군은 남산 기슭 이태원 관사로 자주 걸려온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기록이 여기저기 남아 있기도 하다. 1974년 1월 소위 '말라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반일폭동' 직후 본국으로 급거 귀국하여 줄곧 인도네시아의 모든 정보권력을 장악하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한국 진출기업에도 여러 차례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의 정책시행을 통해 양국간의 외교, 경제교류를 승화시켜 오늘날 한인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70~80년대 이곳에 진출한 동포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것이다.

조꼬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대통령의 인너 서클(Inner Circle) 윤곽이 드

러나고 있다. 루훗 빠자이만 대통령비서실장, 안디 위조얀또 내각비서처장, 빠라떡노 국가비서장관, 리니 국영기업부장관 등이 실세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루훗 빠자이만은 10월 조각 당시 조꼬위의 추천에 의해 정치안보조정장관 후보명단에 올랐으나, 루훗에 대한 권력 쏠림현상을 경계한 메가와띠 측에서 이를 비토하였다는 설이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2009년이래 루훗의 사업파트너이기도 했던 조꼬위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루훗을 그 수장에 임명하여 소장파 측근으로 자리잡고 있는 안디 위조얀또 내각비서처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루훗은 안디의 부친인 고 떼오 샤페이 예비역 소장과 함께 베니 장군의 직계 군부인맥에 속한다. 메가와띠의 후원자이며 조꼬위 선대본부 고문이었던 헨드로쁘리요노 전 국정원장도 베니 장군의 통솔기관인 국군전략정보사령부(BAIS ABRI)에서 잔뼈가 굵은 동일 계보라 할 수 있다. 헨드로와 루훗은 각각 67년도, 70년도 육사 수석졸업생으로 똑같이 육참총장감으로 낙점되어온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부친의 후광이 아직도 절실한 메가와띠 인맥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베니 장군의 인맥과 서로 얽히고 있다. 수하르또 철권정치 하에서도 메가와띠가 '야당전사'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절대적으로 베니 군부의 암묵적인 방임내지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용인술의 특색 중 하나가 부친 통치시대의 측근, 또는 그 후손들을 중용하여 왔듯이, 메가와띠의 지난 2001년 집권기간이나, 집권당 당수로 군림하는 현재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고인이 된 따우픽 끼마스의 뒤를 이어 국민협의회의평의회(MPR) 의장 잔여임기를 물려받았던 시다르또는 1966년 수카르노 대통령의 마지막 부관이었으며, 국영기업부장관으로 입각한 리

나의 부친은 수카르노 정부의 마지막 재무부 장관이었고, 조꼬위 내각의 재무부 장관인 밤방의 부친도 수카르노 딸기, UI대학 총장을 10년간 지냈다. 당시 서부칼리만탄지 역사령관을 지냈던 리아미자르드 국방장관의 부친도 수카르노의 추종자였으며, 그의 장인 프리 수프리스노 전 부통령은 베니 장군의 직속 후계자였다. PPP당 소속으로 종교부 장관에 재선임된 샤리푸딘의 부친은 수카르노의 마지막 결혼식에 NU의 총재였던 이드함 할릿과 함께 증인으로 입회한 종교부 장관이었다.

베니 장군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인 서부이리안 군사작전 시 전쟁영웅으로 수카르노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며, 베니 인맥의 계보를 잇는 헨드로나 루훗, 위란또 장군 등이 지난 대선에서 메가와띠를 중심으로 결집한 것은 메가와띠와 베니 장군 간의 50년 전의 인연이 맺어준 연결고리 덕분일 수도 있다. 본문 서두에서 소개한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자서전 241쪽에 1964년 중반 자카르타 대통령궁(Istana Negara)에서 베니 소

령과 수카르노 대통령간에 이루어진 독대 대화를 아래와 같이(번역본) 소개한다.

짜끄라비라와(대통령경호실) 요원이 되어 달라는 요청은 이제 포기하고, 수카르노 대통령은 곧장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속삭이듯, "진정으로 내 딸아이를 자네와 같은 영웅과 결혼시키게 싶네..."

대통령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딸을 군인과 짝짓고 싶어하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베니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도 진심으로 베니를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의도는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베니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왜냐면, 베니는 이미 선택된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자식 가진 연로한 부모로서, 아무리 (첫)사위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가원수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단어를 찾아가며 거부 의사를 밝혀야 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한인사회

2014년 한 해 동안 적립한 불우이웃돕기 및 개인회비를 언청이아동 수술비로 후원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신기엽)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아 온 불우이웃돕기 및 한인회 개인회비 중 Rp.50,000,000 를 인도네시아 언청이(선천성 안면기형)아동 수술비로 한인회소속 부인회(회장 박미례)를 통해 YAYASAN CITRA BARU에 전달하였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한인회가 작년 한해 적립해 온 기금으로 한인회 여성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언청이 어린이들에게 수술을 시켜주는 사회사업은 양국간의 선린과 우호증진에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말하며 “한인회의 모토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구현의 본보

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수술은 신체적인 장애를 외관적으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치유시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다.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돕는 뜻 깊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업을 펼친 한인회 여성회(회장 박미례)의 활동에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온정을 나누는 기회를 갖기 위해 한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폭 넓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2월10일, Yulia Ramadhani 의 수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명(Muhammad Ridwan (3 years), Teguh Erdi Mansyah (2 years), Putra Akbar Gaozan (4 months), Arik Kurniawan (2 years), Tentative)의 아동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한인회는 이번 언청이 아동 수술비 후원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소외계층에게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기엽 한인회장] 감사인사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한지가 어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청양의 좋은 기운을 받아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한인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마음에 보답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전 한인회원이 보내주신 한인회원 개인회비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적립해 온 기금 (Rp. 54,400,000- USD. 200-)은 2월에 한인회 여성회(회장: 박미례)를 통하여 이웃인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에게 언청이 수술을 시술시켜주는 사회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Rp.50,000,000이며 나머지 잔액은 올해 기금과 통합하여 쓰여질 계획입니다. 언청이수술을 한인회 주요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신체적인 장애를 시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외관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켜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뜻 깊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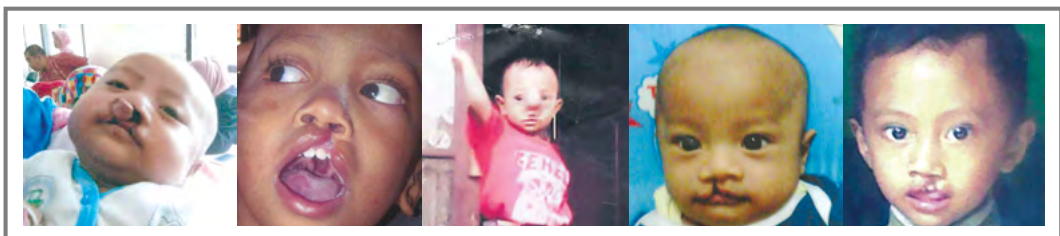
더불어서 이 사업은 본인은 물론 주위 친지 가족들에게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개조와 건강한 미소를 찾아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과 감동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양국간에 선린과 우호증진에 좋은 선례를 남기는 훌륭한 일이며 한인회의 모토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구현의 좋은 모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한인회는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서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에 앞장서신 한인회 여성회(회장:박미례)의 활동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사회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온정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나눔 실천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한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96 주년 3.1절 행사

제96주년 3.1절을 맞아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96년 전 일본의 탄압과 폭정에 맞서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을 기렸다.

롯데쇼핑 에비뉴 아이스 팰리스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3.1절 관련 영상물 시청,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신기엽 한인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조태영 대사가 대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인류평화의 이상은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민족 대단결의 3.1운동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꽃피우는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밑거름이 되었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를 강경하게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 대박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호소했다.

또한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진행 후 표창 수여행사가 이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박근혜 표창은 박현순 자문위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표창은 이희경 KOWIN총무, 김영률모발협회회장이 수상했다.

기념행사에 이어 롯데쇼핑애비뉴 3층(Fun Atrium)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와 인도네시아 UI, UNAS 대학 학생들의 축하공연, UPH 한인학생들과 인도네시아 한사모 학생들의 독도 플래시몹, 인간 태극기,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롯데쇼핑애비뉴, 한국수출입은행, 삼성,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후원하고 열린브라스밴드, 자카르타아버지중앙블,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한바패, 인니 UI 및 UNAS 한국학과 의 협찬으로 진행됐다.

한인회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70주년 및 제96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재외동포 모두가 유관순 열사의 대한독립을 염원했던 간절한 마음을 되돌아보고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BKPM주최, 한국 투자자 대상 특별 세미나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인프라개발&제조업 투자 정보 제공-

2월11일(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이하BKPM)은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향후 인도네시아 종합경제 전망을 비롯하여 인프라 개발 및 제조업 등 주요 투자관심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투 관련규정 변화 추이 및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Indonesia Economic Perspective, Infrastructure and Manufac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15-2019’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조태영 대사, 코트라 송유황 관장, BKPM 청장 등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BKPM청장은 “한국은 인도네시아 상위 5개 투자국중의 하나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의 많은 진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영 대사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친구



이며 경제개발 파트너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며 “기업인들은 체류허가 등 여러 어려움이 없어야 기업을 할 수 있다. 윈스탑서비스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 해주고, 양국 간 경제협력 견인처”가 되어주길 BKPM청장께 당부했다.

송유황 관장은 “인도네시아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영진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환영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며 “어려운 이국땅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한국 기업 또한 현지정책변화를 규제로 인식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소다라은행 합병식

우리 소다라은행(Bank Woori Saudara)이 26일 자카르타 에너지빌딩에서 공식합병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전통춤 따리 사만(Tari Saman)과 한바패의 사물놀이 공연이 어우러진 이날 기념식에는 지난 12월 취임한 이광구 우리은행장, 안또 뿌르보워 우리소다라은행 회장,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기념사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우리은행과 소다라은행이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문화 속에서 발전한 가운데 합병을 통해 한 지붕아래서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소다라 은행은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의 합병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합병승인을 얻었다. 상호 이해와 합심을 통해 성공적인 합병을 이뤄낼 것을 확신한다.

이 행장은 또한 “우리 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중대형, 메이저 뱅크로 성장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금융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한국계 지상사와 한인 동포 모두와 함께 가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안또 뿌르보워 우리 소다라은행 회장은 기념사에서 두 은행의 강점을 살린 시너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



이광구 우리은행 회장

안또 뿌르보워 회장

히면서 “자바섬 이외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지역에 우리 소다라 은행의 네트워크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두 은행의 합병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국가간 금융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우리은행과 소다라은행의 장점을 합쳐,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의 선도은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우리소다라 은행이 앞으로 글로벌 지역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현지 상공인 및 기업과의 협력, 중소기업발굴 및 육성, 노하우 이전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병은행인 우리 소다라은행은 총자산 16억달러 규모로 직원은 약 2천명에 이르고 우리은행은 지분 74%를 갖는다. 또한 우리소다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기존 우리은행 인니 법인의 영업망까지 합쳐 총 119개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제 17회 상생협력포럼 [인도네시아 해양개발 전략 세미나]

- 해양 인프라 개발 및 유관산업 -

26일, 코트라(KOTRA 관장 송유황)는 한.인니 상생협력센터(무역관소재 GKBI 빌딩 12층)에서 ‘인도네시아 해양개발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조코 위도도 신정부의 최대 아젠다인 ‘해양강국’ 건설과제와 관련하여, 인니 정부의 추진 청사진과 프로젝트 정보 습득을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발굴하고, 전략 주관부서인 해양 조정부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현지 진출 한인 기업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해양 조정부 인프라개발 루끼안또 국장이 연사로 나서, 신정부 출범 당시의 인프라 관련 정책과 현재 진행상황, 해양 인프라 관련 사업 설명, 정부와 민간자본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그 후, 이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우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 나갔다.

송유황 관장은 “해양 분야는 신정부의 최대 아젠다이지만, 아직 기본적인 변화는 없고 정비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며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방조제사업(NCICD)은 어떤 정부부처에서 전담해 진행하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다는 기업인의 질문에 루끼안또 국장은 “현재 해양조정부와 재무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중이고, 전담조직이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KOTRA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한국 진출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미래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해 오고 있다.



한인회, 감사패 전달



2월 18일 한인회(회장 신기엽)는 이임하는 박영식공사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박영식공사는 재임 3년간 봉계 하청금지관련 정부령재개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파업시위 대처, 직스의 대사관학교로의 전환 등 동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돌보고 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박영식공사는 “한인사회가 이처럼 단합되고 화합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보람있었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켜보며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배웅식(국제용무도인도네시아지회)회장도 감사패를 전달하며 송별의 자리를 함께 하였다.

4일, 서창석 법인장의 귀국 소식에 신기엽 한인회장, 이인호 총영사, 남승우 신임 롯데 쇼핑 예비뉴법인장과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해 환송연의 자리를 마련하고 간단한 점심 식사와 함께 석별의 담소를 나눴다.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재임 중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와 수고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각 분야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관계 교류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므로 감사패를 제작, 서창석 법인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 법인장은 “한인사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이 자리가 가능했다.” 며 “한인회의 더 많은 지원으로 롯데 쇼핑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며 한인회에 감사드렸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한국에 가시더라도 인도네시아를 잊지 말라.” 고 부탁하였고, 신임 남승우 사장에게 “여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착한사람이다. 속상한일이 많더라도 이해해줘라.” 며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코린도 그룹 자회사인PT. TUNAS SAWA ERMA 는 동띠모르 양묘장 운영사업 과 인도네시아 홍수 예방을 위한 나무심기 프로젝트 공식 후원

코린도 그룹 자회사인PT.Tunas Sawa Erma 는 21일(토) 현지시간으로 9시 Paguyuban Budiasi 와 인도네시아와 동띠모르 녹화사업 및 나무심기 프로젝트 후원금 10억 루피아 지원을 위한 약정 서명식을 가졌다. 승범수 사장(코린도 그룹) 과 Doni Monardo (인도네시아 특전사 사령관, Komandan Jendral Kopassus) 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서명 후 3,4월 경에 한 마을을 선정하여 나무심기/ 가축 기증을 통해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3년간 모니터링

인도네시아와 동띠모르 녹화 사업을 위한 10억루피아 지원 서명식



프르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식목일행사 참여, 묘목재배, 기술 지원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환경보호CSR 전문 사이트인<http://www.paguyubanbudiasi.com> 에 한글판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코린도 그룹 홍보실)

신간안내



지난 2월 28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인도네시아 한인문인협회 주관으로 김주명 시인의 시집 ‘인도네시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김주명 시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한 지 4년 만에 벌써 두 번이나 출판을 하게 됐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들께서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감사하다.” 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문인들과 모든 한인동포들이 문학과 예술이 삶의 위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시인 김주명은 196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문화재해설사로 활동하며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해 남다른 시각의 글들을 기고하였다. 이후 대구詩창작원을 수료, 2010평사리문학대상(환승입니다)을 수상하고 2012년 인도네시아 롬복 섬으로 이주하여 ‘롬복 한국문화원’을 열고 해외 문화교류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한인문인협회 회원, 형상시문학 동인이다. 산문집 ‘Lombok이야기’ (베스트출판사 2013)를 출판했다.

시집의 전문은 시인의 블로그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으며, 한*인니문화연구원에 신청을 하면 배부받을 수 있다. 시인이 자카르시집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이태복 문협 홍보이사가 기획하고 한인포스트에서 후원하였다.

KT&G,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상상빌리지’

- 첫 대상지역 인니에 6억4천 지원... 생활환경 개선에 자립교육 제공까지



KT&G(사장 민영진)가 해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상상빌리지’ 프로젝트를 첫 실시한다.

‘상상빌리지’ 사업은 해외 빈곤층 거주지역 개선과 자립을 돕는 KT&G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첫 대상지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는 12개월간 총 6억 4천여만원을 투자해 가정집 40채를 개축하고,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배수시스템도 보수해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이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위생 및 금융 등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15일까지 대학생 및 임직원 봉사단 50명이 참가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대규모 봉사활동 ‘상상빌리지-희망의 집짓기’에서는 현지 주택을 재건축해 저소득 가정의 따스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인근 학교의 낡은 외벽을

화사하게 꾸미는 페인팅 작업과 현지인들을 위한 ‘아리랑 퍼포먼스’와 ‘K-POP’, ‘난타’ 등의 문화공연으로 민간교류활동도 펼친다.

KT&G는 지난 10여년간 해외에서의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에 30차례에 걸쳐 대학생 및 임직원 봉사단 900여명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효석 KT&G 사회공헌부장은 “KT&G는 매년 국내 100대 기업 평균의 10배가 넘는 매출액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라며 “해외 50여개국에 진출해있는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도 저소득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5 인도네시아 패션위크 개막

개막일, 폐막일 프라임 타임에 3인의 한국 디자이너 패션쇼

- 2.26(목) 19:30 홍혜진 (브랜드 : STUDIO K)
- 3.1(일) 19:30 이지연(브랜드: JARRET)
- 권문수(브랜드: Munsoo Kwon)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패션디자이너협회와 공동 협력하여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인니 최대 패션 행사인 인도네시아 패션위크(2.26~3.1) 개막일과 폐막일 프라임 타임에 한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디자이너 3인이 해외 디자이너들과 함께 선보이는 패션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이상봉회장(디자이너)과 패션쇼를 선보이는 홍혜진,



권문수, 이지연 디자이너, 패션분야 미디어가 함께 초청되어 양국 패션산업 관계자들 간의 교류 활동과 패션쇼, 취재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특별행사로 한국모델협회가 주최하는 서울 아시아 모델대회 “인도네시아 선발대회”도 개최(2.28 19:30~21:00)했으며, 유망 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패션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패션위크는 디자인, 섬유, 의류를 포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패션분야 창조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관광부, 중소기업부, 창조산업 특별기구의 후원아래 매년 상반기 개최된다. 2015년에는 2월 26일에 성대한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3월 1일까지 개최했으며 747개의 패션브랜드와 디자이너가 참석하여 4일간 32개의 패션쇼가 진행 됐다.



The 4th Global Leadership Camp In English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 이하 JIKS)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월 23일부터 26일(3박 4일)까지 Tanjung Lesung Sailing Club에서 제 4회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에는 본교 4, 5학년 중 신청 학생 27명, 원어민 교사 2명을 포함한 지도교사 4명, 캠프 진행을 도와줄 고등학교 10, 11학년 4명,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본 캠프는 새로운 테마인 “Islands Countries”를 주제로 하여 섬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임성일교감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에 이어 원어민 교사의 지도로 ‘New Zealand’, ‘Fiji’을 주제로 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이러 학생들은 Raft building, Sailing, Snorkeling, Cycling, Boat trip to island, Fishing, Triathlon (Running, Cycling, Sailing을 이어서 하는 3종 경기)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활동을 체험하였고, Quiz Show, Face painting and Haka (뉴질랜드 원주민 전통 춤), Talent Show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상호 협력하는 능력을 길렀으며, 특히 영어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필수요건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김건우(본교 6학년)는 친구들과 즐겁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캠프가 매우 유익하였으며,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Jakarta Intercultural School (JIS) 에서 2월 12일 밤 6시에 Popular Musician' s Union (PMU) 클럽이 매년 개최하는 콘서트 JIStock 이 열렸다. JIStock 은 PMU 클럽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한 콘서트인데, 음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오디션을 거쳐 콘서트를 여는 것이다. 콘서트를 통해 모은 돈은 모두 *House of Hope 이라는 불우 이웃돕기 동아리에게 기부 되었다.

PMU 클럽은 매 해 두 번 콘서트를 연다. 1학기 때는 Unplugged 라는 콘서트를 개최하고 2학기 때는 JIStock 을 꾸준히 열어 왔다. JIStock 은 Acoustic 음악에 중점을 두지만 Unplugged 는 JIStock 과 달리 Rock과 Electronic 음악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JIStock 은 19개의 공연들로 이루어 졌다.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밴드 공연들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 JIStock 에서는 여러 학년의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하였다.

최민준 (10) 학생과 김은영 (10) 학생은 Day by Day 라는 노래로 첫번째 무대를 보이며 콘서트를 시작했고, 최성혁 (12) 학생은 밴드 공연에 참여하여 Are You Gonna Be My Girl 이라는 곡을 연주하였고, 이어서 신예환 (9), 이보니 (12), Henry Kim (11) 도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공연을 마쳤다.

2월달에는 JIStock 이외에 A Cappella Fest 도 열렸다. 2월 5일 과 6일, Joint Sound 라는 JIS 고등학교 학생 성가대가 19세기 부터 21세기 까지의 팝 음악의 주제를 가지고 아카펠라 공연을 하였다. A Cappella Fest 에는 학생 성가대와 더불어 현지 전문 아카펠라 그룹 Jamaica Cafe 도 게스트로 출연 하였다.

매년 열리는 아카펠라 공연은 2년 마다 주제가 바뀐다. 작년에는 Madrigal의 주제를 갖고 Madrigal' s dinner를 하여 학생들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뮤지컬과 같은 비슷한 공연을 하였다. 올해는 다시 일반 A Cappella Fest 로 돌아갔지만 다른 주제도 관심을 끌었다. 이주희 (12), 조화진 (12), 정도훈 (11), Henry Kim (11), Jeffry Lim (11), 그리고 전지은 (10) 학생을 포함한 Joint Sound 성가대는 다함께 매혹적인 목소리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다.

2월달에 열린 JIStock 과 A Cappella Fest 에는 JIS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서널 학교인 JIS에서 한국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 * House of Hope 은 자카르타에 있는 한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놀아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일년 전에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원을 도와주는 용도로 기금이 사용 되었다.



2015년 2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가정용 LP가스통 폭발사고...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이달 초 중부자바 뜨갈군에서는 가정에서 쓰던 LP가스통이 폭발해 일가족 5명을 덮쳤다. 폭발 직전 가스냄새를 맡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LP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푸른색의 가정용 12kg들이 LP가스통은 아직 한국처럼 도시가스 시스템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 그리고 화재 등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주 LP가스통 때문에 심년감수했다. 주방에서 쓰던 LP가스통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그 위력에 주방에 있던 집기 등이 산산조각이 났고 가스에 불이 옮겨 붙어 다리에 화상까지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수리공을 호출해 가스통 검사를 한 바 있지만, 안전의식의 부재인지 제대로 잡기지 않았는데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며 “가정용 가스통 실린더 부분 등 이음새가 느슨하게 되어있어 가스가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더 이상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이나 핫플레이트 제품으로 교체할 것” 이라 덧붙였다.

뻘쭙란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 달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귀가 후 집에 와보니 강한 가스냄새가 코를 찔렀다. 행여나 큰 사고로 이어질까 바로 수리공을 불러 확인했지만 수리공은 “가스를 거의 다 쓴 경우, 가끔 이렇게 가스가 누출된다” 는 어이없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곧장 가스통 교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방에 놓인 가스통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꼭 조여주는 것이 중요한 데, 부품들이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 항상 불안하다. 일단 급한대로 마트에서 한국산 부품을 구매 바꿔놨다” 고 말했다.

이처럼 폭발위험이 높은 LP가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비단 가정용 LP가스통만이 아니다, 길거리의 수 많은 까끼리마(노점상)에서 사용하는 3kg 들이 가스통, 가스통을 가득 싣고 달리는 트럭들과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우는 담배 등 화재 위험은 언제나 산재해 있다. 다만 개인차원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스통을 점검하고 누수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3월부터 수카르노하따 공항 가루다 티켓창구 없어진다

글쓰기

국영항공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PT Garuda Indonesia)은 23일 오는 3월 1일부터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과 북부수마트라 메단의 꾸알라나무공항의 티켓 창구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측은 “티켓 판매 창구를 폐쇄한 것은 고객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티켓을 소지함으로써, 운항 지연 등의 불편함을 막고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항운영공사 양까사 뿌라II(PT Angkasa Pura II)는 지난 2월 15일부터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 내 모든 티켓판매카운터를 폐쇄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고객서비스에 차질을 우려한 항공사들의 우려에 따라 티켓창구 폐쇄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며 오는 5월 전면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루다항공 티켓판매창구는 고객서비스창구로 바뀌어 항공사 운임정산(fare adjustment), 환불 및 취소(refund and cancellation), 일정 변경(reschedule) 등 안내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티켓을 미리 구입하지 못한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서비스창구에서는 전화센터운영과 함께 컴퓨터 기기 대여 등을 통해 승객들이 바로 티켓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루다 측은 가루다 홈페이지(www.garuda-indonesia.com) 또는 가루다항공 24시간 콜센터(021-2351-9999), 여행사 등으로 문의해 미리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 내에는 총 6개 항공사의 티켓판매카운터가 있다. 제 1터미널에는 라이언에어, 바딕에어, 스리위자야에어, 시티링크 카운터, 제 2터미널에는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 제 3터미널에는 에어아시아 카운터가 있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LG 전자 땅으랑에 세탁기 생산라인 본격 가동

LG 전자 인도네시아(PT LG Electronics Indonesia)가 26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냉장고와 세탁기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서부자바 반뜰주 땅으랑 레곡 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총 3헥타르 부지 위에 세워졌으며, 조립과 품질테스트 및 판매까지 담당한다. 이 공장에서는 연 70만 대의 세탁기를 생산할 수 있다.

LG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내 세탁기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달성하며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LG는 TV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찌까랑 찌비똥 지역에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는 땅으랑 레곡의 공장에서 생산된다.

감비르서 한국인남성 마약소지로 현행범 검거

마약사범 척결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한국인 남성(47)이 마약소지 혐의로 중앙자카르타 경찰당국에 붙잡혔다.

이니셜 KKH로 알려진 이 한국인 남성은 지난 15일 밤 블루버드 택시를 타고 중앙자카르타 감비르 지역을 지나던 중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급습(Razia)했을 때 K씨로부터 2개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총 9정의 엑스터시 마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한국인 남성은 체포 전 서부자카르타 따만 사리지역에 있는 유흥가를 방문한 뒤, 자신의 숙소가 있는 서부자바 땅으랑 다답지역의 아파트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인도네시아 마약법에 따라 최소 4년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거리재판에 죽어나가는 범죄자들, 죄를 짓지 맙시다

범죄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을 시민들이 잔인하게 ‘즉결처형’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바이 강도 등 폭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의 불안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피의자를 폭행하며 치명상을 입히는 등의 ‘거리 재판’ (Hukum Jalan)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카르타 경찰당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시민들을 노린 잔인한 범죄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운전자를 가로막고 오토바이를 가로채 달아나는가 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일 또한 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들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카르타 시민들은 블랙베리 메신저나 와츠앱 등 SNS를 이용해 자카르타 특정지역에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최근 데벙 경찰당국은 고등학생 세 명을 지난 1일 그랜드 데벙 시티로(Jl. Grand Depok City)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용의자로 체포했다. 그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용의자들은 데벙 주안다 대로(Jl. Juanda)와 마르곤다 대로(Jl. Margonda)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치기 사건과 동일범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오토바이 주인이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한 사건도 포함돼있다. 오토바이치기 범인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일반인을 자신들의 오토바이로 쳐서 넘어뜨린 뒤, 날카로운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범죄자들도 위협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20대 남자가 오토바이 탈취범에 의해 오토바이를 빼앗겼다. 흉기로 위협하는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민들이 몰려와 피의자 한명을 폭행했으며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이외에도 범죄현장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시 주민들이 몰려와 용의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즉결처형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카르타경찰당국은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아래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있다.” 며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 즉결처형 또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약한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짓은 아주 비겁하다. 그들은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며 내심 거리재판을 반기는 눈치다.

자카르타경찰당국은 최근 국민들이 서로를 두려하며 치안유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권력이 있다는 판단아래 피해자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임을 깨닫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 우리꺼” , 자국생산 고집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부품 중 최소 40%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현지언론이 전했다.

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법안을 다음달까지 제출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디안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서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로 연평균 40억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점차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스마트폰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바꾸겠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획을 도울 수 있을 것” 이라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은 다국적 IT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베트남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공장 가동을 본격화했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시에 의하면 인구 2억 5,000만 명으로 세계 네 번째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1/3에 못 미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해 2018년경 1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다국적 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며,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비용 증가와 스마트폰 접근성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앰참) 역시 이달 12일 루디 장관에게 “법안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IT비용이 늘어 핸드폰 암시장을 자극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등 우려를 표시했다.

린 네우만 재인도네시아 앰참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고품질 휴대전화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체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 라고 말했다.



조코위 만난 아훅, 승리의 V?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가 지난 27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자카르타 지방의회에 대한 국정감사권 관련 논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언급된 국정감사권은 앞서 2015년 자카르타주 예산심의중 바수끼 주지사가 지적한 12.1조 루피아의 행방을 두고 주의회와 마찰을 빚게 되며 화두로 떠올랐다.

조코위 대통령, 경제특구 개발 논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23일 소피아 안 잘릴 경제조정장관과 라노 가르노 반뜰주주지사와 함께 뻘데글랑 판중르 승을 찾아 경제특구 개발을 논의했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힐링이 필요하세요?

김자형(자카르타 거주)

는데 달랑 사진 한 장뿐이니 더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 계획이 잡힌 어머니와 고모의 인도네시아 방문! 발리를 보지 않고 인도네시아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잠시 잊고 있던 그 곳이 생각났다. 오! 예약버튼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셋은 함께 그 곳에 가게 되었다. 두 시간 가까이 달리는 동안 한껏 멋을 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카페, 레스토랑, 상점이 빼곡한 거리를 지나고 물건 몇 개 없는 구멍가게, 목공소가 보이는 현지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초록만 가득한 길로 풍경이 바뀌었다. 인도네시아 식의 심플한 건물 몇 개 뒤로는 밀림이 그 앞으로는 넓은 논이 펼쳐진 광경은 국적, 인종을 만무하고 사람들에게 고향에 온 마음이 놓이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듯 했다.

소근소근 속삭이듯 말하는 리셉션 직원도 나중에 알고 보니 요가 강사 중 한 명이었다. 이 곳에서는 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다. 조용히 명상을 하고 쉬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곳이다. 머무는 동안 필요한 식기, 침구가 든 꾸러미를 하나씩 받아 들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연꽃이 가득 핀 연못이 나오고 온갖 과일과 야채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숙소는 개인 방갈로와 남자 도미토리, 여자 도미토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도미토리를 선택했다. 여자끼리 침대가 나란히 놓인 방에 짐을 풀고 있자니 시간을 거슬러 수학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즐겁다. 방은 심플하지만 깨끗하고 편안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정갈했다. 짐을 풀고 오후 요가 시간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 하루 두 번 요가 시간이 있는데 참여 여부는 자유다. 그 외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되 조용히 해야 한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말 없이 지내는 게 답답할 것 같지만 사실 고요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의 평화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서로 눈치를 보며 쿡쿡거렸지만 이내 익숙해져 눈빛으로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졌다.

세 미낙과 우붓, 짐발란 그리고 잘 알려진 명소를 대략 다 보았기에 발리는 다 봤다라고 생각했다.

달리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 짧게 다녀올 수 있기에 다른 리조트, 다른 유명 레스토랑에 가 보는 재미 정도랄까?

우붓의 한 리조트에서 요가 세션이 끝난 후 요가 선생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는 내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 손 글씨로 작은 메모를 건넸다. “This is the most magical place I know in the world”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매력적인 그녀가 추천하는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곳이라니 혹시나 메모를 잃어버릴까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하지만 컴퓨터로 검색을 해봐도 아직은 오픈 전이라는 메시지만이다. 곧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판만 두들기면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오

럭셔리 리조트도 아니고 그 외떨어진 곳에 가서 말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거기에 왜 가나 싶을 수 있겠다.

일단 사방이 트여있다. 약 12000평의 넓은 공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슴이 확 트이는 360도 풍경과 절대 고요, 깨끗한 공기가 이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들이 “아! 살 것 같다!”라고 외쳐댄다.

자체적으로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로 식사를 한다. 그날 그날 바로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채식 식단은 상상 이상으로 맛있다. 야채가 듬뿍 든 미네스트롱 수프, 가지와 싱콩 튀김, 라임으로 맛을 낸 파파야 샐러드, 레드라이스 포리지, 논두렁을 뛰노는 오리 알로 만든 스크램블 예크, 진한 코코넛 밀크 요구르트 등 뷔페로 차려진 음식 중 입에 맞지 않는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 채식만으로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식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매일매일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3박4일 지내는 동안 곱치는 메뉴 거의 없이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다. 하루 2번 식사로 충분했고 혹시나 허기를 느끼는 사람을 위해 하루 종일 잡곡쿠키와 과일, 허브 차가 제공된다. 하루 몇 잔씩 향기로운 허브 차를 마시면 디톡스는 덤이다.

뒤로는 밀림 속으로 앞으로는 논길을 따라 내려가 마을 골목길까지 어슬렁 어슬렁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마당에서 파파야를 따서 깎아주기도 하고 뭐 하나라도 주려는 시골인심이 그대로 살아있다. 추수해서 막도 정하고 있는 햅쌀도 한 꾸

러미 헐 값에 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랑 사진도 찍고 현지인들과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사방이 뽕 뚫린 야외에서 요가는 벽으로 딱 막힌 요가 스튜디오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 몸 주위를 에워싸는 느낌…… 지내는 동안 갈 수 있는 6회의 요가 시간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요즘도 명상을 할 때면 바로 그 장소를 상상하며 시작하곤 한다. 깨끗한 공기의 냄새와 살결에 와 닿던 바람의 느낌, 모두의 평화롭고 미소 띄운 얼굴들과 주위를 에워싼 녹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며 내게 그곳을 추천한 요가선생님의 의견을 나 역시 100% 지지한다.

이미 내게는 완벽한 이 곳에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다.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온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다.

고요함 속에 힐링이 필요할 때면 달려가고 싶은 소중한 곳이다.



마리카사트 <정원의 소녀>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작가: 마리 카사트 (Mary Stevenson Cassatt, 1844~1926)
작품: <정원의 소녀, Girl in the Garden> 1880~1882,
oil on canvas, 92 65cm

일생을 열 두 달로 나누어 보고, 사계절로 나누어 본다면,
3월 봄날은 한창 젊은 시절이 되겠다.

미국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마리 카사트(Mary Cassatt)의 <정원의 소녀, Girl in the Garden>를 보는 순간 3월이 연상되었다.

빨간 꽃 만발한 정원에 한 소녀가 바느질을 하고 있다. 배경은 과감한 대각선 구도의 길이다. 경사진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내포한다. 다행히 소녀는 오르막을 향하여 앉았다. 길 안쪽에는 빨간 꽃 피어있는 정원이, 길 건너엔 나무숲이 있다. 그리고 어설픈 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길을 가로질러 서 있다. 흰 옷에 뒤로 묶은 머리, 반듯한 앞가르마의 소녀는 푹푹하면서도 다부져 보인다. 소박하여 경건해 보이는 소녀는 인생의 봄날에 꽃밭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손에 쥔 바느질감은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생각에 몰두하기 위한 구실일 뿐.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정원의 소녀는 등 뒤에 놓여진 경사진 길과 미래를 향한 열정, 동경, 당시 여자들의 삶 등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카사트는 19C 중엽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찌감치 전문적인 화가로 살려면 결혼이 걸림돌이 되리라 판단하고 미술에만 전념한다. 미술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남성 누드화가 금지됨에 반발하는가하면, 여학생은 입학도 안 되던 시절에 파리로 유학을 가서 결국엔 에콜 드 보자르에 입학해서 미술수업을 받는다. 일생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지낸 카사트는 드가의 작품을 만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뎃생, 파스텔 사용, 판화, 동적인 구도 등 여러 면에서 드가의 영향을 받는다. 페미니스트인 카사트와 여성혐오주의자로 알려진 드가가 서로의 작품을 인정하며 공동 작업도 한 것은 참으로 신선한 아이러니다. 카사트는 남성위주의 인상파 그룹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화풍과 작품세계를 이루어낸다.

당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신여성들(Modern Women)의 사회적이고 주체적인 일상을 주로 그렸으며 특히 어머니와 자식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그들은 대부분 내성적이고, 지적이고, 꾸밈이 없고, 일이나 과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책을 읽고 있다. 카사트에 의해 처음으로 주체적인 여성의 일상이 소중하게 그려졌다. 그는 그림 속 여성들처럼 주체적으로 우뚝 섰으며, 모성애로써 삶과 예술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미국의 근현대 미술 컬렉션과 젊은이들에게 끼친 영향을 보면, 카사트는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로 살았음이 분명하다.

다시 <정원의 소녀>를 바라본다.
3월이면 생각나는 우리의 '유관순' 모습이 오버랩 된다. 흰 저고리, 앞가르마, 결연한 모습.....
그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키워드, '독립' 과 '세상을 향한 모성애' 로
3월엔 무엇을 싹 틔울 것인가.



검은 돌맹이의 열, 혼, 녀이 깃든 족자카르타

이 인 상 (정년 교육공무원)

1.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약 512km) 시간 10분 소요되는 고도(古都)인 족자카르타(Yogyakarta)는 한국 경주와도 같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고대도시로 전통적인 자바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이곳을 사공경원장이 팀장이 되어 20명이 탐방하였다. 연구원 족자탐방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처음처럼 마음이 서성여 잠을 설쳤다.

이곳은 ‘옥야카르타’ 또는 ‘족자’ 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평화의 마을” “우정의 도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술탄(Sultan)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종교적 유물·유적의 문화예술이 있는 곳이며, 수공예품 및 바틱 생산의 중심지이며, 원시종교, 민간신앙에서의 잡다한 신령에 대한 신앙을 믿는 애니미즘(animism)과 자와의 풍습과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 꼬자웬(kejawen)이 있는 곳이다.



II. 무엇을 찾고 보러 가는 가

첫째 날: 족자(Adisucipto)공항에서 내려 찾은 첫 번째 탐방지, 프람바난 사원(Candi Prambanan)은 거대한 힌두교의 사원군(寺院郡)이며, 동남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보로부두로 사원보다 50여년 후인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초까지 건설되었다고 한다. 사원군 중 중앙에 우뚝 솟은 사원이 파괴의 신 시바신전으로, 시바 신에게 바친 신전이라고 한다. 좌우에는 창조와 보호의 신 비슈누 신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신전 앞쪽에 신들이 타고 다니는 승물 즉, 시바 신은 물소 “난디(Nandi)”, 브라마 신은 백조 “앙사 (Angsa)”, 위스누 신은 독수리 “가루다 (Garuda)” 를 모신 3개의 신전이 있고, 그 주위로는 제물을 상징하는 8개의 작은 사원이 세워져 있다. 특히 사랑의 전설이 울려 퍼지는 시바 신전에 있는 시바 신의 아내 두르가(Durga) 여신상은 “날씬한 여인”이란 의미의 라라종그랑(Rara Jonggrang)이라고 부른다. 특히 두르가 여신상이 소를 밟고 서 있는 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슬프고 감동적으로 서사시처럼 전해지고 있다. 신화의 여운을 담고 찾은 다음 탐방지는 오래된 천주교 성당이었다. 성당 건물양식은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에서 표방했으며, 부처님 혹은 힌두 신을 닮은 예수님 성상을 모시고 있었다. 그 다음 인도양 해변, Parangtritis에서 펼쳐질 저녁노을 광경을 그리며 당도한 곳은 절벽 위에 위치한 “남쪽의 여왕” 호텔로, 멀리까지 내려 보는 인도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으며, 해변 검은

모래에서 마차 타기(Dokar)는 행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일 것이다.

둘째 날: 유명한 므라삐 화산(Merapi, Puncak Garuda)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이다. ‘Meru’는 ‘산’을 의미하고, ‘Api’는 불을 의미하는 자바어의 합성어이다. 우리는 색깔 다양한 지프차로 화산재 계곡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화산 폭발 당시 비참하게 파괴된 마을의 생활용품, 동물 등이 화석처럼 남아 있었다. 벽시계는 폭발시인 2010년 11월5일 금요일 12시5분에 멈춰져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산지기노인(Mbah Maridjan, 1927년생)의 희생과 죽은 영혼을 위하여 에텔바이스 꽃으로 헌화하였다. 그는 2010년 10월 26일 화산 폭발 시 끝까지 므라삐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다. 우매해서일까. 므라삐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

오후에는 올렌센파루 왕궁박물관을 탐방하고 보로부두르로 가서 사원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구조는 10층으로 504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므라삐 화산의 폭발로 보로부두르 사원은 천 년의 은둔 끝에 다시 세속에 나왔다. 멀리 보이는 (30Km) 므라삐 흰 구름이 아기 웃음처럼 잔잔한 자비가 되어 우리들의 매마른 마음 채워주고 있었다. 스투파에서 나오는 기운은 비루한 일상의 조각과 미처 꿰매지지 않은 삶의 상처 난 부분을 가만가만 다독여 주는 듯이 자비의 파도 속으로 조용히 나를 밀어 넣고 있었다.

므라삐 화산이 숨겨 두었던 언덕 승방을 찾아 언





덕 위 장대한 검은 돌 향기 집합체를 느꼈다. 돌 내음 풍기는 기도 살이 마을을 보았다. 방광대장 엄경 조각과 부조의 스투과의 의미를 알고, 스투과 속 부처님의 가운데 손가락을 만졌다. 간혀 있는 부처님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허나 먼저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임은 저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임을 보고 있습니까. 그때, 므라삐 화산의 연꽃이 연기로 떠돌며 젓빛 조각배 하나를 전송하고 있었다. 무명을 깨치는 이 여정의 씨앗은 유한하고 무한한 쉼터로 받아하고 있었다.

셋째 날: 베짜(Becak)을 타고 현지 생활의 내음새를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들러 보았다. 길가 좌판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모습은 우리네 옛날 장터를 느끼게 했다. 마을을 돌아 왕궁(Keraton Sultan)으로 향했다. 초대 족자국왕은 하멩꾸부워노(Hamengku Buwono, 1755년 취임) 1세였으며, 네덜란드의 식민통치에도 족자왕국은 존속

하였다. 1988년에 술탄 하멩꾸부워노 9세가 사망하면서 아들 10세가 계승하고 있으며, 도지사 를 겸하고 있다고 한다. 왕궁을 나와서 남쪽으로 가면 물의 궁전, Taman Sari(따만사리)가 있다. 이곳은 술탄이 왕궁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지하 기도실도 있었다.

마지막 탐방지인 아판디 박물관은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그는 1990년 작고 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으며, 그의 작품은 전형적인 인상파풍이다. 말기에는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모든 그림을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려내는 생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 얼, 혼으로 그리는 예술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의 특징인 밝고 두터운 색이 섞여 있는 그림들은 흰 벽에 연대기 순으로 걸려 있는데, 작품 값이 억대 원이 넘는다는 안 내인의 설명을 뒤로 한 채 자카르타로 돌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였다.





III.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종교 신화에서 만나는 낯선 형상들은 문화 살이 비슷한 만남과 엇비슷한 헤어짐을 반복하고 신화는 역사의 첩바퀴까지 맞대고 있었다. 한껏 기원 바람 넣고 브라흐마 찾아 가는 힌두(Hindu), 붓다 자비 쫓아가는 보살, 무함마드 열정 태우려가는 무슬림, 정령신앙(Animis) 지키는 원주민, 또 하나 아픔과 모자람을 지켜내는 자바인들(kejawen) 이에 돌아갈 자 돌아 올 곳 생각하며 예언자 되어

생각 저울 도래질 한다. 낯선 인간들에게 춤사위로 덩실 배움하며 쪽머리 하얀 머리핀 꽃은 므라삐(Merapi)는 산머리 앓아 내려다보며 스투파에게 묻는다. 뿌람바난과 보도부두르의 혼·얼·넋을.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짊어지고 가느냐고

끝으로 팀원들을 그려 보았다. 무역을 하는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여 우직함과 상냥함을 보여 인기가 짱 이었던 총각. 듣는 것마다 열심히 메모하는 어머니와 한 장 한 장 카메라에 담던 모녀, 학생 해외취업을 위해 부산에서 멀리 인니까지 오신 교수님 내외분. 연구원 족자탐방을 네 번째 동행한 불심 깊은 왕언니, 딸 출산 간호 왔다가 동행한 어머니,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에 아들이 수상했다던 학부모, 40대 후반이지만 아가씨 같은 예쁜 엄마들이 남편 걱정과 자식 생각하는 모습, 한국 가톨릭대학교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에 2개월 인턴으로 온 모델 같은 소라학생, 그리고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원장님. 추억 속의 그리운 이들. 늘 푸르고 아름다우세요.





한국인의 김치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아온 탓인지 가끔은 한국에서 먹던 김장독에서 갓 꺼낸 차가운 겨울의 김장김치가 생각나기도 한다. 요즘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번갈아 생활하다보니 김장철이 되면 친정언니는 의례히 내 몫의 김장김치까지 담아놓는다. 특히 올해의 겨울은 다른 어느 해 보다 김장김치로 인해 풍성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동창인 세 명의 단짝친구들이 저마다 각자의 맛을 자랑하는 김장김치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일산에 사는 40년 지기 친구의 보쌈김치는 짠맛도 전혀 없고 각종 견과류와 과일로 김치속이 꽉 차 있어 먹을 때마다 보양식 김치를 먹는 느낌이다. 친구의 진한 우정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다. 또 한 친구는 아예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김치 통째로 제대로 숙성이 되어 한창 맛이든 김치를 가득 담아 가져왔다. 한국에 있을 때는 김치 걱정 말고 김치찌개며 김치전도 실컷 부쳐 먹으라는 속 깊은 친구의 마음이 잘 익은 김치 맛처럼 정겹기 그지없다.

이처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 살아도 한국인인 우리에게 진한 고향의 맛과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다른 어떤 반찬이 많아도 김치가 없으면 허전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 역시 김치를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임을 뼈 속까지 숨길수가 없는가보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사시사철 즐겨먹는 발효식품이기에 종류도 많고 맛도 다양하다. 한국과 계절이 다른 인니에 살고 있어도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고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갖은 양념이 들어가기에 비타민 및 영양소도 풍부한 것은 물론이다.

김치의 종류로는 보통김치와 김장김치로 나뉘며 보통김치는 오래 저장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담아먹는 것으로 배추김치, 나박김치,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굴을 넣은 깍두기, 겉절이 등이 있다. 김장김치로는 겨울동안의 채소공급원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먹는 김치를 일컫는다.

김장김치의 종류로는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고들빼기김치, 섞박지 등 다양하다. 김장을 담그는 일은 한국인만의 오랜 풍습이기에 지방마다 풍습, 기호, 계절의 차이에 따라 김치의 재료와 양념, 담그는 방법과 시기등도 달라 여러가지 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새삼 김치 이야기를 하자니 벌써 20여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지만 90년도 초반, 나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해외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김치가 세계적인 먹을거리로 글로벌화 되진 않았기에 싱가포르 한국슈퍼에서 작게 포장된 일본식 김치만을 팔고 있었다. 맛도 느끼하고 그것으로 김치를 먹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질 않아서 나는 집에서 김치를 담가보고 싶었다. 그런데 한국식 배추가 슈퍼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다. 가까스로 로컬 시장에서 배추와 비슷한 양배추를 발견하곤 그것을 사서 소금에 간간히 절여 놓았다. 그때는 갓 새댁이었고 김치도 친정엄마가 담그시는 걸 어깨너머로 본 것이 전부였다. 오직 한국식 김치를 먹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양배추 김치를 담가 보았다.

더운 나라 탓인지 양배추가 금방 숙성이 되어 그런대로 배추김치 못지않은 맛을 내주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내가 담가본 김치를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의 삭막했던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김치로 인한 인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 당시 이웃에 새로 이사 온 주재원 가족인 훈이 엄마의 잊지 못할 김치 맛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생활의 특성상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이 빈번하게 교차하던 시절이었다. 삶이란 늘 그런 것이라 여기면서도 새로 이사 온 사람보다는 떠나보냈던 친한 이웃을 못 잊어 맘이 뒤숭숭하던 어느 날 이었다. 덩동, 초인종이 울리고 대문 앞에는 고향집의 친정언니를 떠올리게 하는 한 여인이 서있었다.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훈이 엄마예요, 인사도 드릴 겸 가져온 것이니 한번 드셔 보세요.” 그녀가 가져온 것은 김치 한포기가 맛깔스럽게 담긴

커다란 접시였다. 참기름 한 방울, 김치 한보시기도 한국음식이 귀할 때라 그녀가 가져온 고춧가루로 별절게 버무린 전라도식 김치쟁반은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입맛을 현혹시킨 그 남도김치의 매력은 배려심 많은 따뜻한 이웃을 만났다는 행복감마저 느꼈다. 그렇게 김치로 인해 해외에서 돈독하게 다져진 그녀와의 우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두 번째 해외생활인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식 배추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배추김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김치를 담가먹을 수 있기에 한인들의 먹을거리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김치 이야기를 하자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행기로 자주 왕래하다보니 주로 국적항공사 비행기를 애용하는 편인데 기내식에 우리의 김치가 빠져있다. 비행기에서는 장시간 앉아만 있기에 개운한 김치기 먹고 싶을 때가 많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나 글로벌 먹을거리인 한류로 떠오르는 우리의 한국식 김치가 국적항공사 기내식에는 왜 제공되지 않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본다. 김치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 음식인 고추장은 튜브 형으로 제공되는 반면 김치는 주 메뉴에 빠져있는 것 같다. 아마도 동남아 국가의 두리안처럼 김치의 독특한 냄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외국인들에게 김치가 너무 짜거나 맵다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김치 맛은 살리고 냄새를 최소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염분농도를 측정해서 짜지 않는 김치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류바람이 불면서 한식이 각광받고 특히 김치가 세계화 되고 있다는 것은 김치를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으로 살아온 긴 세월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맛있게 숙성되어 식탁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김치를 볼 때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내안에 있는 나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며 우리의 자존심인 김치가 있기에 우리의 역사는 또 다시 새롭게 그려지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다.



미적 체험을 위한 장소 Cemara 6 Galeri - Museum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신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는 완전성, 균형과 조화, 명료성 이 세 가지 조건을 내포하며 이는 도덕적 선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훌륭한 사람의 삶은 선량한 동시에 아름답고 열정적이다. “도덕의 극치는 바로 예술의 극치로 통한다.” 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나는 예술을 사랑하고 GALLERY를 좋아한다.

Cemara 6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최상류층의 주거지였던 살딘 멘텡(Menteng)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UI) 미학, 철학과 교수이자 여성 활동가인 Toeti Heraty (1933년 생)씨는 둘째 딸인 인다(Inda)의 도움으로 1993년 12월, 전나무를 뜻하는 ‘Cemara’ 예술 갤러리를 오픈한다. 카페, 도서관, 선물코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갤러리 개관

식 때 목파르 아벤(Mochtar Apin)이 그린 12작품의 누드화를 전시했다. 홈스테이 기능을 더하여 1996년 12월 4일 원래 장소의 뒤편인 현재 장소로 옮긴다. 이곳은 Toeti Heraty의 개인 수집품을 위한 공간으로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어한다. 두 채의 건물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채는 Galeri - Museum와 거주를 위한 곳이 되었고 한 채는 갤러리 공간이다. Cemara 갤러리는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미적체험과 휴식을 즐기 위한 곳으로, Anyar, Bali, Bandung 등 여러 곳으로 발전했다. 1층 전시관에서는 활발하게 여러 장르의 전시회가 열린다. 2층 갤러리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분위기이며 상설 전시관이다.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1층 안마당은 지중해 스타일로 ‘Cemara’의 역사가 느껴진다.

장관이었던 아버지 덕에 뛰뛰는 네덜란드에서 대학교를 다닌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로부두르 재건과 이슬람 대사원에 관여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귀국하면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목파르 아벤 화가에게 ‘배 (boat)’ 그림을 선물 받고, 아판디(Affandi) 대가의 딸인 까르띠까 (Kartika)와 친분을 쌓으며 심오한 예술 세계에 눈뜨게 된다. 아판디 작품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10회분할로 구입하기도 한다. 1962년 UI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네덜란드 레이덴의 Rijks 대학교에서 철학사 학위를 받는다. 1979년 UI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녀는 현대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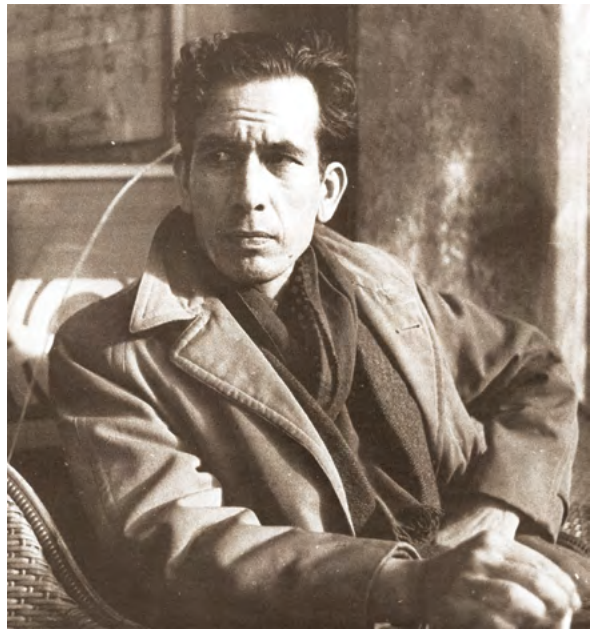
유명한 화가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그림을 많이 수집하게 되었다. 특히 뛰뛰는 1991년 예술 공원 TIM의 25주년 기념식 때(1993년) 파리에서 공부한 살림 (Salim)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53점의 살림 작품을 모두 사버린다. 살림(100세, 2008년 별세)의 작품은 별도의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살림. 1908년생, 1928년 네덜란드로 유학, 1929년 암스테르담에서 민족주의자 Muhammad Hatta와 Sutan

Sjahrir와 만남. 그는 독립과 국가에 헌신할 것을 골돌하게 생각하며 사명감으로 23살(1932년) 때 고국에 돌아왔으나 1935년 Hatta와 Sutan Sjahrir이 Papua Digul로 유배된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민족화가의 자리는 없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힘든 유럽생활을 선택하게 된다. 1927년~1931년까지의 첫 번째 파리에서의 삶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의 미래의 삶의 결정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이였다. 1935년 그는 다시 네덜란드가 돌아갔으며 이후 주로 파리에서 활동한다. 1935년 이후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살림은 독일점령 아래 네덜란드에 있었다.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울 지하조직에 합류했다. 그는 유대인을 구해주는 것 뿐 만아니라 마이클이란 이름으로 금지된 출판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자카르타, 반둥, 발리에서 7회의 전시회(1951년~2008년)가졌다. 그중 2005년 전시회는 Galeri Cemara에서 살림 출판기념회와 같이 개최되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그의 작품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양의 정서가 바탕이 된 현대성과 창조로 잘 승화시킨 것 같았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삶의 환희와 마음 속 꿈을 놓치지 않는 색감은 어



Jalan-jalan Jakarta

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 1950년 파리를 방문한 아판디는 인도네시아 풍이 남아 있는 그의 그림을 보고 기쁘고 놀라웠다고 한다. 살림, 유럽에서 인도네시아 화가이었던 그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의 그림이 창조되고 발전되었다. 그는 그의 신념대로 살았고 예술적인 삶과 고난, 시련을 극복하였다. 파리에서 드디어 그는 문화와 예술의 세계 화가로서의 인정받게 된다. 뚜띠는 전시뿐만 아니라 화가들의 작품을 Cemara를 통해 많이 판매해주기도 했다. 뚜띠는 40여 명의 인도네시아 작가의 작품을 150개 이상 수집했으며 대부분 개인 주요 전시실인 Museum Gallery에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 박물관에는 그 유명한 아판디와 그의 딸 까르띠까 아판디 그림도 있다. 또한 스리하디 수다르소노, 아구스 자야, 수조요노 등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로 가득하다. 샤르롯데 빵가베안, 르나와띠 등 여성 화가의 작품들도 있다. 바수끼 압둘라(Basoeki Abdullah)작, ‘뚜띠어머니’ (1938년 작)와 까르띠까 작 ‘뚜띠의 아버지’ (1996년경), 수다르소노 작 ‘뚜띠의 자화상’ (1994년)도 전시되어 있다. 1971년 네덜란드로 떠날 때 전설적인 화가 수조요노가 그려 준 ‘어머니와 두 딸’이라는 작품은 유학을 떠나



는 여성의 비장감도 보인다. 그녀의 소장 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목파르 아벤의 누드화였는데 부드러운 곡선으로 밝게 채색되어 있었고 에로틱하면서도 몽상적인 분위기였다. 부끄럽지만 충만한 사랑의 전제이기도 한 나신(裸身). 새로이 태어나는 모든 사랑, 위대한 예술은 모두 순전(純全)한 알몸이지 않던가. 문화의 꽃, 예술을 감상하면서 체험이나 공감을 통해 나는 자연이나 인생을 깊이 만나게 되고 쉽게 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조국의 따뜻한 봄이 그리운 계절에 나는 Cemara에 간다. 따뜻한 차와 함께 목젓에 걸리는 그리운 이름들을 걸러 마시며 그림 속으로 걸어간다. 돌아오는 길에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을 가슴 가득 채운다.



Jl. Hos Cokrominoto 9-11 Menteng,
Jakarta Pusat 10350
Telepon: (021) 3911823, 31924505
Fax: (021) 3918761
E-mail: galericemara6@yahoo.com
Museum Gallery 입장료 Rp. 10,000



제 27차 헤리티지 탐방 블랙베리/ 복분자 농장

일시 : 3월 26일(목) 7시

장소: Cipanas All seasons Holland

일정

9:00 뽀짝 Pass

11:00 스트로베리 농장 및 보관창고 방문

12:00 블루베리 농장 방문

1:00 점심 식사

1:40 스트로베리 및 복분자 구입

2:00 자카르타 향발

5:30 자카르타 도착 예정

(모든 일정은 사정상 변경 가능)

회비: 15만 루피아(점심식사및 가이드 비용 포함)/비회원 20만 루피아

비회원은 헤리티지 행사에 한번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임윤희 7547yh@hanmail.net

헤리티지 밴드 Pagi 앱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네덜란드인들이 뽀짝 산자락에 운영하는 대규모 베리농원에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복분자, 딸기,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 각종 베리를 과학적인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르가닉으로 재배하여 씻지도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베리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싱싱한 블루베리/복분자/ 딸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 인턴학생 모집안내

일시: 2015년 3월~5월 토 오전 2시간

장소: 국립 박물관

자격: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가족 회원 가입필수(가족 4인 기준65만 루피아)

박물관 교육 수료증/ 가이드 자격증명서 수여

인원: 선착순 5명

찬란한 문화유산의 꽃이라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에서 학생들이 참가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원하는 경우만 자원봉사 도슨트 경험을 하게 해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이수진irenesujin@hotmail.com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합니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 코리아안섹션



에퀼 Bottling Plant을 다녀오며...

인도네시아 헤리티지에서 이번 탐방을 에퀼 Bottling Plant로 간다하여, 에퀼 정도면 자연환경이 끝내주는 곳에 있을 것 같고 또 1년 중 가장 인기 있는 탐방이라해서, 방학중인 5학년 딸 아이와 같이 갔다. 아침 일찍 7시 집에서 출발, cibubur 휴게소 스타벅스에서 헤리티지 탐방원들과 접선후 2시간이 못되어 서부 자바의 수카부미 방향으로 도착한 에퀼 탄산수 공장은 진짜 우와~ 이 곳에 이런 선한 것이!!! 라는 감탄이 절로 자아 내게한다. 유럽 로마제국풍의 하얀 아담한 건물 (Villa D. Equilibrium)이 뒤에는 살짝 멀리 살락 산을 배경으로, 오른쪽으로는 사슴들을 풀어놓은

작은 농원, 왼쪽으로는 소나무들을 심어놓은 산책로 그리고 그 앞으로 자그마한 인공호수가 한쪽의 풍경화처럼 서로 어우러져 우리 탐방원들을 맞았다. 이런 곳에 이런 건물이?라는 반전의 좋은 첫인상은 에퀼 공장에 대한 호기심을 더 높여놓았다. 에퀼측에서 웰커밍 드링크로 내놓은 음료는 진짜 너무 훌륭했다. 내용물은 에퀼 스파클링 워터에 마르키샤 시럽을 섞은게 전부였으나, 천장 높은 유럽풍 건물 안에서 와인잔에 받아든 그 음료는 우리의 눈도 혀도 모두 만족시켜주었다. 건물안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들을 인테리어와 그림 그리고 소품등으로 근사하게 매치시켜 건물안에 첫발을 디더놓는 어느 누구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이국적이면서도 익숙하게 만들어놓았다. 그 안에 걸린 모든 그림들은 에퀼의 물을 주제로 한 것으로, 선한신과 악한신이 서로 싸우다 고대원시의 훌륭한 물을 먹고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간 이야기들, 그리고 물 맑은 곳을 배경으로한, 우리의 선녀와 나무꾼 동화와 비슷한 왕자와 일곱 선녀의 이야기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선과 악, 남녀를 소재로한 이야기들은 비슷비슷하구나하고 웃음짓게 만들었다.

건물에서 나와 헤리티지의 에퀼 방문을 환영합니다하는 공장입구에 걸린 플래카드로 에퀼의 작은 배려를 볼 수 있었다. 호감가게 생긴 키 큰 싱가포르계 인도네시아 젊은 직원이 우리를 맞이하고 공장으로 안내했다. 공장입구에서 머리를 덮는 하얀 캡모자를 쓰고 그 직원을 따라 공장 투어를 시작했다. 공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에퀼의 모든 종류, 용량의 물들을 이 곳에서

동시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작은병, 하루는 큰병 이런식으로 물을 담아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장 사이즈에 고개를 끄덕였다. 에퀼측 가이드는 사실 이 곳은 공장이 아니라며, 자기들은 이 곳에서 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병 세척과 소독 작업들을 거쳐 바로 옆 수원지의 물을 이 곳에서 병에 담는 작업을 할 뿐이라며 그 곳 작업장을 소개했다. 작은 초록색 에퀼병들이 컨베이어에 나란히 줄지어 가며 소독과 살균 과정을 거쳐 물이 병에 주입되고 주입 후에는 또 병의 외관과 물이 불륨을 검사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공장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인 스틸워터와 에퀼의 미네랄워터가 무엇이 다른지도 알려주었다. WHO 산하기관인 CODEX에서 미네랄워터는 펌프로 뽑아내거나 강물등을 정수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는 천연수원지에서 나는 것으로써 아무것도 첨가하지않은, 바로 수원지 그 곳에서 bottling (병에 담는)작업을 해야한다고 지정했단다.

이렇게 병에 담긴 에퀼물은 바로 판매자에게 연결되지 않고 4일간 그대로 일단 작업장에 보관한다. 왜? 미네랄워터내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활동하는데까지 4일이 걸린단다. 그렇게 4일을 기다린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작업장 내에 있는 실험실에서 물의 오염도 여부를 측정한다. 에퀼 설립자가 처음에 미네랄워터 생산을 하고자 투자를 받으려할 때, 은행직원이 그랬단다. 물이 강물이자, 무슨 천연 미네랄워터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더운데 미생물이 난리를 치지 않겠느냐했단다. 그런데 이 가이드의 설명을 빌리자면, 병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을 잡아먹고, 또 그 미생물이 미생물을 잡아먹고 그런 순환을 통해 물이 나쁜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단다.

에퀼의 수원지도 바로 작업장 옆에 있어서 볼 수 있었다. 물이 진짜 풍풍풍 솟아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에퀼의 물의 근원은 작업장 너머 저기 뒷동네의 살락산(Mt. Salak)에서 온 것으로, 오래된 나무를 탄소 테스트로 나이 측정하듯이 물도 이산화규소로 알 수 있단다. 이 에퀼 물은 테스트 결과 150년 된 물이란단다. 살락산에서 비가 오면 빗물들이 그 곳의 초목들을 통해 필터링되어 그

산의 화산토양으로 침투하고, 150년을 거쳐 근처로 흘러흘러들어 그 곳의 지하 80m아래로 거대한 대수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데 헤리티지측에서 준비한 비빔밥을 소나무숲 아래서 점심으로 맛있게 먹고 술방울들을 딸 아이와 몇알씩 주웠다. 에퀼은 갈 때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갈 때 한사람당 거의 2리터 되는 미네랄워터와 760ml용량의 스파클링 워터를 우리에게 기념품으로 주었다. 유치원 다닐 때 농심 공장 갔다가 구디백 받아온 추억이 떠올라 살그머니 웃었다.

예고없는 공짜 선물은 언제나 즐거운 것이여~ 에퀼에서 이어지는 탐방지는 리도호수였다. 두개의 뗏목배에 10명씩 나눠타고 유유자적 40분간 강위를 떠다녔다. 바람도 불고 헤리티지 멤버 분위기도 좋고 즐지에 뗏목도 타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흥분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여유로워 보인다. 한배에 탄 헤리티지 탐방원들이 강물이 더럽느니, 쓰레기를 버렸느니, 애들이 구걸행위를 한다니 등등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상적인 비난을 하지 않아서 배를 타고 있는 40분 동안도 다행이다, 배에서 내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각자 집에 가면 되는데, 헤리티지 총무님이 차에서 아이스 박스를 가져오시더니 사람들에게 얼린 미니메이드 음료수를 하나씩 나눠주신다. 와... 이 여행 참 끝까지 따뜻하고 조오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 마음은 훈훈한 마음과 감동에 이미 물들어있었다. 고마워요 모두들~

오명희 (자카르타 교민)



생애주기에 따른 관계형성

집단 속의개인



집단의 의사결정은 항상 바람직한가?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아무거나’ 일 것이다. 문제는 그 아무거나가 정말 아무거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거나’ 먹지만 중국 음식은 별로인 사람과 ‘아무거나’ 먹지만 밥 종류를 먹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자’ 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점심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결정에서조차 결정하기를 미루는 것(즉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사소하지 않은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더욱 미루고 싶어한다.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이를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부족한 경우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 합의, 다수결과 같은 구성원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오류를 파악하는 힘이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생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까? 회의 시간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라.

<Z사의 회의시간>

사원A : ~지긋지긋한 회의를 또 시작한다. 내 이야기 해봤자 회의 시간만 길어지니.. 어차피 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거니 대충 맞춰주자.

사원B : A가 또 부장 눈치 살피며 아부를 떠는군.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부장 의견으로 Go!

부장 : 아~ 역시 내 의견이 정확하군. 요즘 애들은 스펙은 좋을지 몰라도 실무에 적용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지를 못해.

집단이 고립될수록, 집단 내 응집력이 높을수록, 리더의 영향이 클수록, 그룹 외부의 위협이 높고 지각될수록, 모두들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뿐더러 그러한 주장은 쉽게 묵살된다.

집단이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개개인이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집

단의 경우 혼자서 결정할 때보다 오히려 가능한 해결책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집단 모두가 일치하는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이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고 결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료는 무시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바뀌는 일은 드물게 된다.

이와 같은 집단 사고는 집단이 고립될수록, 집단 내 응집력이 높을수록, 리더의 영향이 클수록, 그룹 외부의 위협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강력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들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뿐더러 그러한 주장은 쉽게 묵살된다. 수많은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를 우상화하고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개개인이 항상 집단의 의사에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며 소수가 다수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이에 대해서는 네이버캐스트 ‘소수와 다수’ 를 참조하라).

집단 속의 개인: 사회촉진 vs 사회억제

당신은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잘되는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편이 더 나은가?



사회촉진이란 사람들이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과 같은 경우다.

집에서 내 방이 따로 있고, 집 안도 조용하여 나의 집중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공부가 잘되어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뻘썩 쳐다본다거나 다수가 나를 주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주의가 분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게 되는 것을 사회촉진(social facilitation)이라고 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억제라고 한다. 이러한 촉진이나 억제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데 쉽고 단순한 과제라거나 이미 많은 수행을 통해 습관화 되어버린 일이라면 타인의 존재는 내가 과제를 더 잘하게 하는 촉진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과제가 복잡하여 상당한 인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거나 과제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연습이 부족한 상태라면 타인의 존재는 수행을 떨어뜨린다.

집단 속의 개인: 사회태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속담이다. 그렇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반드시 효과적일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에서는 나 하나 짊어지는 척만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쉽고, 대충하게 된다. 이처럼 집단 속에 있을 때 노력을 덜 투입하게 되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체 훈련 중 하나로 소위 말하는 목봉체조(구성원 모두 일렬로 서서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다시 반대로 옮기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힘을 합쳐 목봉체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열에서 있는 사람은 그저 손만 나무에 걸친 채 힘든 척을 하

고 맨 앞 뒤 사람만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느라 고통스러워한다.

우리가 운동회 때 한 번씩 해보았을 만한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에서는 나 하나쯤 당기는 척만 한다 해도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쉽고, 그럴 때면 있는 힘껏 당기기보다 대충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단 속에 여럿이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것보다 노력을 덜 투입하게 되는 현상을 이러한 현상을 처음 소개한 막스 링겔만의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라 한다.

링겔만은 밧줄에 압력계를 부착하여 한 사람이 당기는 것과 여러 사람이 당기는 것에 대한 힘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개인으로 측정한 평균 힘의 크기는 85kg이었으나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평균 힘의 크기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7명일 경우에는 평균 65kg, 14명의 경우는 평균 61kg).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이와 같은 사회태만에 빠지는 것도 아니며, 분명히 함께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팀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태만이나 무임승차를 줄이고, 오히려 사회 촉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만약 함께 일을 진행하더라도 참여자들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거나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을 더욱 투입하는 쪽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너무 큰 집단을 만드는 대신 소규모 집단으로 집단을 구성하면 응집력도 더욱 강하게 될 수 있고 개인의 기여도도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그 밖에도 구성원들이 일의 중요도를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우리'에게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과제에 대한 개인의 노력의 양이 증가된다.

예를 들어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각기 다른 역할을 지니는데, 쾰러(Köhler, 1926)는 다른 집단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집단의 수행에 맞추기 위해 혼자 수행할 때





보다 더욱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집단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를 쾰러 효과(Köhler Effect)라 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에는 적용되기 어려우며 주로 오랜 시간 지속해야 하는 끈기가 필요한 과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일을 진행하더라도 참여자들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을 더욱 투입하는 쪽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한 사람만의 생각과 힘을 끌고 나가는 것은 대체로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때론 불가능한 일이기까지 하다.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의 모둠활동에서부터 공동 작업은 시작되며, 자라면서 크고 작은 조별 활동과 팀 작업, 특정 단체 소속, 가족회의, 아파트 반상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을 진행시킨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공동의 주제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 즉, 같은 방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 동기를 유발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힘을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가 속한 집

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가령 나는 A팀의 일원이야, 이번에 내가 속한 팀은 축구로 치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수준이야), 구성원들이 일의 중요도를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우리’에게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과제에 대한 개인의 노력의 양은 증가한다.

개인은 집단의 구성원이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이 클수록 내 목소리는 작아져 버리고, 주류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언급된 집단내의 의사결정시의 오류나 잘못된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나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자. 또한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혹시 큰 집단 뒤에 숨어 나 하나쯤이야 식의 빈번한 무임승차의 늪에 빠지지 않는가? 무임승차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3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윤영/영남대 심리학과교수)



분쟁 해결(4)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9. 중재

9.1. 중재란 거래 혹은 계약 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법정 제도를 뜻한다.

9.2.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 : 회원국 중재원의 판결문을 다른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가능하다. 한국 상사중재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9.3. 중재 근거법률 : 중재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

9.4. 반드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하고 그 판결에 복종한다는 중재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9.4.1. 준거법 : “예” 인도네시아법 혹은 대한민국법

9.4.2. 관할권 : “예” 인도네시아 중재원, 사적 중재, 대한민국 상사중재원 혹은 제삼국 중재원

9.4.3.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지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ensia/ BANI)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BANI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9.4.4.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BANI. The award rendered by BANI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9.4.5.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yang keputusannya mengik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9.5. 일반법원의 소송청구 각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단 파산선고 소송은 예외이다.

9.6. 소송 과 중재의 차이

9.6.1. 제도상의 차이

9.6.1.1. 소송 절차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9.6.1.2. 중재 : 단심제, 중재원의 판결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음

9.6.2. 소요 시간상의 차이

9.6.2.1. 소송 : 지방법원 약 6개월, 고등법원 약 5-6개월, 대법원 약 6개월-1년

9.6.2.2. 중재 : 약 6개월

9.6.3. 경비상의 차이

9.6.3.1. 소송 : 변호사비

9.6.3.2. 중재 : 변호사비 + 공식 중재비

9.6.4. 재판부의 자질상의 차이

9.6.4.1. 소송 : 판사(일반 법률전문가, 법원장이 지정)

9.6.4.2. 중재 : 중재위원(해당분야 전문가, 분쟁 당사자 및 중재원이 지정)

9.6.5. 재판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9.6.5.1. 소송 : 공개원칙

8.6.5.2. 중재 : 비공개 원칙(*비밀 유지)

9.6.6. 변론인 자격상의 차이

9.6.6.1. 소송 : 변호사

9.6.6.2. 중재 : 당사자 혹은 변호사

9.6.7. 분쟁해결 대상상의 차이

9.6.7.1. : 소송 : 모든 분야

9.6.7.2. 중재 :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계약 혹은 합작투자

9.6.8. 판결문 강제집행 국가상의 차이

9.6.8.1. 소송 : 자국 영토내에서만 가능

9.6.8.2. 중재 : New York 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가에서 가능

9.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9.7.1.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

9.7.2.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I)와 독립분쟁해결 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

10.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10.1. 1997년 12월 3일 설립된 BANI는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기관이다. BANI는 법적인 신분은 사립 단체이지만 그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공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모든 뉴욕협약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10.2. 분쟁은 나지 않았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혹은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거 BANI는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 BANI의 유권해석을 어기는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10.3. BANI의 중재영역 : 상거래, 합작투자 등 모든 상행위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10.4. 중재의 기본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을 기재하거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BANI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BANI 중재가 불가하다.

10.5. 중재청구 등록

중재청구자는 BANI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구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형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0.5.1. 청구자 및 피청구자의 성명 혹은 상호, 주소 혹은 연락처
- 10.5.2. 분쟁내용 설명
- 10.5.3. 청구사항
- 10.5.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재 청구합의서

10.5.5. 제삼자에게 위임 시 위임장

10.5.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I에 지명의뢰 의사 표시

10.5.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10.5.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0.6. 중재처리 절차

중재는 BANI의 중재 처리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자와 피청구자 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0.6.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0.6.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10.6.2.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청구자와 피청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BANI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재부장이 된다.

10.6.3. 청구자나 피청구자가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I에서 직권으로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자측에서 중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데, 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니, 중재청구를 당하면, 피청구자는 BANI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대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법정에서 싸움보다 더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다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문과 같아서, 중재 상대 당사자가 형법을 어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ANI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이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10.6.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명망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교수,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기술전문가, 업종 협회 회장 등 기타전문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전문가 등이 있다.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 명단을 검토해보고 청구자나 피청구자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10.7. BANI의 중재비

10.7.1. BANI의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번호 청구액(Rp) 중재비

1. 500,000,000 이하 : 10.00%
2. 500,000,000 : 9.00%
3. 1,000,000,000 : 8.00%
4. 2,500,000,000 : 7.00%
5. 5,000,000,000 : 6.00%
6. 7,500,000,000 : 5.00%
7. 10,000,000,000 : 4.00%
8. 12,500,000,000 : 3.50%
9. 15,000,000,000 : 3.20%
10. 17,500,000,000 : 3.00%
11. 20,000,000,000 : 2.80%
12. 22,500,000,000 : 2.60%
13. 25,000,000,000 : 2.40%
14. 27,500,000,000 : 2.20%
15. 30,000,000,000 : 2.00%
16. 35,000,000,000 : 1.90%
17. 40,000,000,000 : 1.80%
18. 45,000,000,000 : 1.70%
19. 50,000,000,000 : 1.60%
20. 60,000,000,000 : 1.50%
21. 70,000,000,000 : 1.40%
22. 80,000,000,000 : 1.30%
23. 90,000,000,000 : 1.20%
24. 100,000,000,000 : 1.10%
25. 200,000,000,000 : 1.00%
26. 300,000,000,000 0.90%
27. 400,000,000,000 : 0.80%
28. 500,000,000,000 : 0.60%
29. 500,000,000,000 : 이상 0.50%

10.7.2. 상기 공식 중재비 중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추가 부담)

10.7.2.1. 전문가 증인 초청비

전문가 증인 채택은 중재 당사자가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이 초청할 수도 있다. 중재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중재부에서 요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전문가 증언에 관련된 경비는 중재 당사자가 부담한다.

10.7.2.2. 해외거주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중재위원의 출입국 교통비, 국내 숙박비 및 추가비용(*필요시)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2.3. BANI 중재실 밖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 장소비를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2.4. BANI 판결문 법원등록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2.5. 당사자의 요청 시 BANI 의견서 제공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10.7.3. 상술한 공식 중재비는 테이블에서 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하기 힘든 현시 실정이다.

10.7.4.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처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50%씩 납부하도록 통지가 가며, 피청구자가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가 중재비 50%를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피청구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사항이다.

10.8. 맞춤재 청구

피청구자는 청구자에 대하여 맞춤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춤재 청구 시한은 중재 첫 심리 전까지이다.

10.9. 쉼석 중재판결

피청구자가 중재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쉼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쉼석판결에 대 하여 피청구자는 판결내용 피통지일로부터 14일내에 쉼석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쉼석판결문의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자가 BANI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국제간이니까 관찮겠지 인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조치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도네시아 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법원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대한민국의 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재원의 판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중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 절차가 민사소송법대로 진행됨으로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11. 결언

분쟁 해결 방법을 당사자 간 직접 협상으로 할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 협상으로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인지, 중재를 청구할 것인지, 파산선고를 청구할 것인지,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는, 분쟁의 본질, 상대자의 의지 및 상대자의 지불능력 등을 검토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현지 제도를 통해 강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채권 존재 입증에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의 범죄 혐의 증거물이 확실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내가 있어 행복한 아침

시/그림 : 이 태 복

조잘 조잘
행복주머니가 터졌다
시끌벅적 새소리에
잠을 깨다.

아하!
차라리 바이올린을 들어
저들과 함께
아내를 위한 합주나 할까?

벌써 중헌인가?
살짝 따가운
당사실 같은 햇살
온 밤을 가득 채웠다.

어젯밤 폭풍우에 씻긴
대개할 번 야자수 뒤로
늦잠 든 바다를 지키는
하늘이 청명하다

이불에 감긴 채
햇살에 쏘인 아내는
실눈을 떴다

야호!
코끝으로 스며오는 재스민향기
행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아침

꽃밭에 흘러내리는 음표들
귀는 미소가 싸인 된
입꼬리를 당기고
기지개를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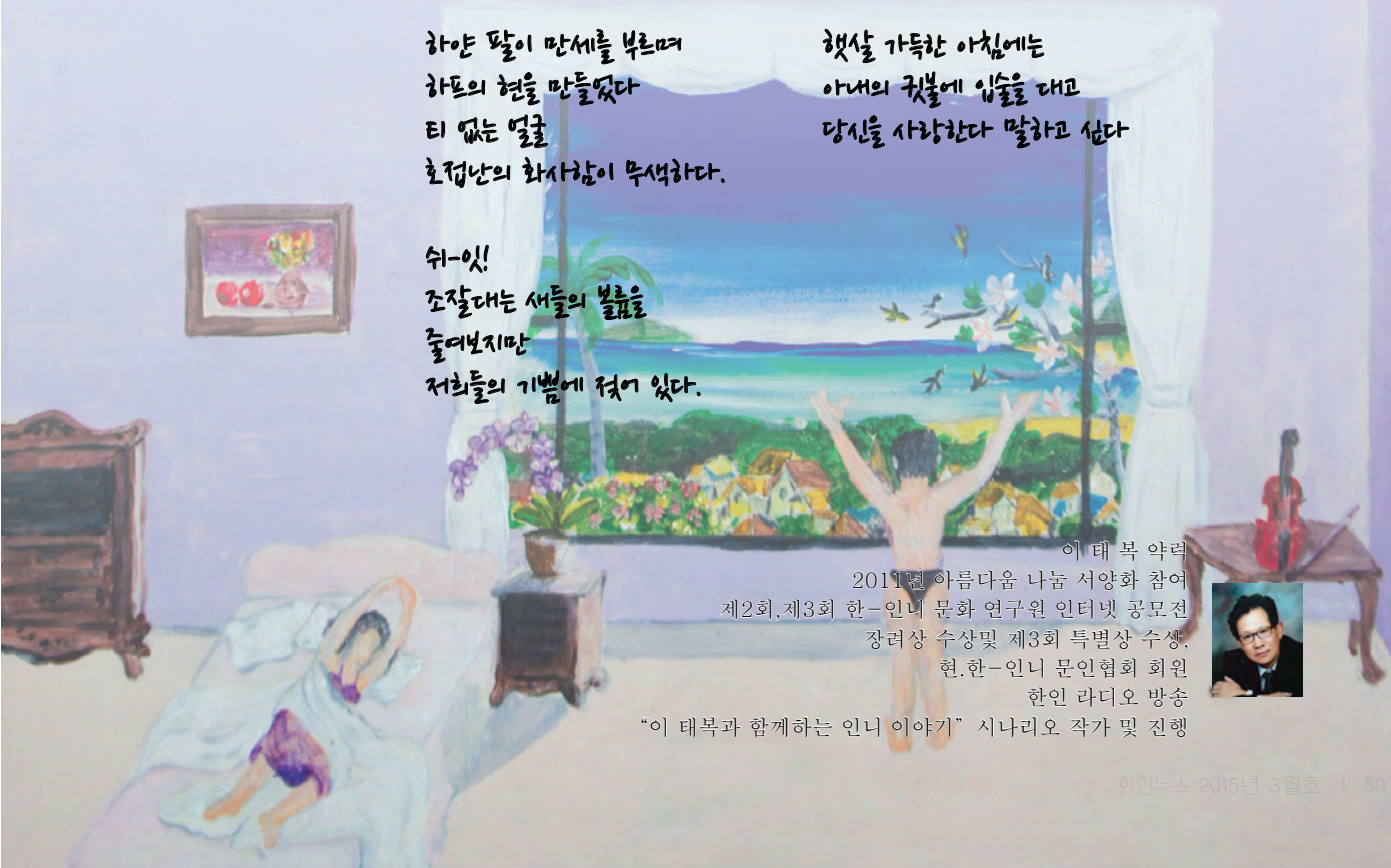
오늘은 게을러도 좋겠다.
일어나지 말 걸 그랬지
아내에게 팔베개 걸고

하얀 딸이 만세를 부르며
하프의 현을 만들었다
티 없는 얼굴
호접난의 화사함이 무색하다.

햇살 가득한 아침에는
아내의 귀볼에 입을 대고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쉬-잇!
조잘대는 새들의 볼륨을
줄여보지만
저희들의 기쁨에 젖어 있다.

이 태 복 약력
2011년 아름다움 나눔 서양화 참여
제2회, 제3회 한-인니 문화 연구원 인터넷 공모전
장려상 수상 및 제3회 특별상 수상,
현.한-인니 문인협회 회원
한인 라디오 방송
“이 태복과 함께하는 인니 이야기” 시나리오 작가 및 진행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우기가 끝난듯합니다.

비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친구들도 없어질 테고 수재민 관련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신랑은 이제 18홀 온전히 돌 수 있는 계절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사람됨됨이는 18 홀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열대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 중 손꼽히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골프의 첫째 교훈은 자제, 즉 불운도 감수하는 미덕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영순/OKTN (KBS WORLD)



모든 일의 시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아들 태주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소원하게 한 것이 서운한 설희는 문희장에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하와이에서 쉬고 오겠다고 투정합니다.

Kenapa mereka tidak mengindahkanmu? 개네 들이 왜 너를 무시하는데?

(따르지 않는데?) , (관심 보다는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 따위를 듣지 않는다)

염두하다. 주의를 기울이다(충고나 조언). 관심을 갖다. 조심하다. 관심을 두다(menaruh perhatian) 대표적인 뜻은 ‘관심을 갖다.’ 이지만 문장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1. **Mempedulikan** (tidak baku) = Memedulikan (baku) =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 Memedulikan 이지만 구어체로 Mempedulikan 으로 사용된다. Me. me. du. li. kan으로 끊어 읽으며, 존중하다 mengindahkan, 관심을 갖다 memperhatikan (존중하다,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menghiraukan, 간섭하다 mencampuri (perkara orang dsb), dll. 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주요 뜻은 관심을 두다 (돌아보다, 들여다보다), 사회 봉사 활동 또는 구호 활동 및 *발생한 문제나 상황에 대한 주의, 관심을 표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Tidakada seorangpun yang memedulikannya ketika ia sakit.

그가 아플 때 관심을 두는(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Ia suka mempedulikan (mencampuri) urusan orang

그는 남의 일에 끼어드는걸 좋아한다.(간섭하다)

2. **Mengindahkan** Meng. In. dah. kan 로 끊어 읽으며 주목하다.memedulikan, menanggapi (마음에) 새기다 또는 귀담아 듣다, *충고나 조언에 귀 기울이다 (따르다) mendengarkan atau

meresapkan ke dalam hati (nasihat, saran dsb) 라는 뜻을 갖는다. (어떠한 사람의 행위에) 대꾸하다, 대응하다 라는 뜻으로 도 사용된다.

-Ia tidak mengindahkan nasihat orangtuanya. 그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한다.

(따르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Anak yang patuh. Ia selalu mengindahkan nasihat orangtuanya.

효자는 항상 부모의 충고를 마음에 새긴다.

어근인 Indah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mengindahkan v mencantikkan, menghiaskan, memperelok, membaguskan 와 뜻을 같이하며 장식을 하다, 꾸미다, 치장하다 라는 뜻을 갖는다.

3. **Memperhatikan** Mem. Per. Ha. Ti.

Kan 로 끊어 읽으며peduli, menaruh perhatian.

*관심을 두다라는 뜻으로 menghiraukan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Menghiraukan = Meng.

Hi. Rau. Kan으로 끊어 읽으며 주의를 기울이다. memedulikan, melayani, meladeni atau mengambil pusing (keadaan/masalah)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주의를 기울이다 의 뜻을 갖는다.

-Jangan menghiraukan orang yang tidak memperhatikanmu.

너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Perlu menghiraukan kejadian(masalah) pada tetangga.

이웃이 당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관심하다, tidak memperhatikan또는 tidak mau tahu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4. **Mengawasi** Meng. A. Wa. Si로 끊어

읽으며 (어떠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다, 관찰하

다 보다 Melihat dan memperhatikan (tingkah laku orang),

*주시하다, 자세히 살피다 Mengamati dan menjaga baik-baik; mengontrol.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Penjaga toko terus mengawasi bocah lusuh yang masuk ke toko itu.

상점 경비는

-Polisi mengawasi tindak-tanduk dua preman yang menjadi target operasi.

-Ibu mengawasi adik yang sedang bermain di ayunan.

5. **Mengacuhkan** Meng. A. Cuh. Kan 로 끊어

읽으며 관심을 두다, 간섭하다 memedulikan, menaruh perhatian., (행동)에 주목하다 mengindahkan,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행위 또는 어떠한 사건(관심거리, 흥미거리)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Terlalu sering main gadget sehingga tidak mengacuhkan keadaan sekelilingnya.

기계를 과도하게 가지고 놀아서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Kesemrawutan jalan terjadi karena banyak pengendara yang tidak mengacuhkan rambu-rambu lalu lintas.

대부분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무시해서 교통이 혼잡하다.

Acuh tak Acuh 염두에 두지 않다 (tidak menaruh perhatian); 주위를 기울이지 않다; 무관심하다 (tidak mau tahu); 무관심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숙어로 사용된다.

* Masa bodoh 와 같이 (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염두해 두지 않고)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때 종종 사용되며 전혀 신경쓰지 않는 tidak peduli apa-apa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tidak memperhatikan sama sekali 이라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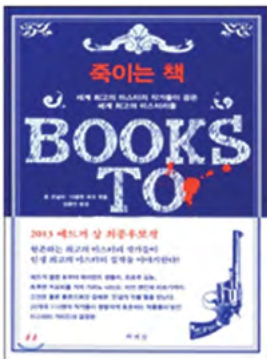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만물 이야기

미야베 미유키 저/김소연 역 | 북스피어

『만물 이야기』는 초봄의 뱀어, 여름의 만물 가다랑어, 가을의 감 등 각 계절의 식자재를 기이한 이야기에 버무린 미야베 미유키 수사물의 대표작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요리를 모두 실제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지만,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만물에 있다는 설정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이 소설은 『혼조 후카가와와 기이한 이야기』와 더불어 NHK 드라마 <모시치의 사건부>로 제작된 바 있다.



죽이는 책

존 코넬리, 디클런 버크 공편/김용언 역 | 책세상

영미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9세기 작가들부터 최근 주목받는 미스터리 작가들까지, 미스터리 소설의 역사를 빛낸 작가들의 걸작 미스터리 121편을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20개국 119명의 장르작가들이 엄선하여 비평한 미스터리 비평 선집이다.

미스터리야의 망망대해에 처음으로 발끝을 적시려는 이들에게는 물론, 익숙한 향해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미스터리 가이드북의 결정판으로, 에드거 앨런 포와 찰스 디킨스, 레이먼드 챈들러, 대실 해밋, 조르주 심농, 마이 세발 & 페르 발뢰, 트루먼 커포티를 거쳐 페터 회, 기리노 나쓰오, 이언 램킨에 이르기까지, 고전은 물론 풍문으로만 접해본 '전설의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다룬다.



35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사이토 다카시 저/이현지 역 | 북스코프

35세는 세상의 파도와 더불어 인생도 너울 치는 시기다. 무한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다. 내일은 알 수 없다. 계획은 필수지만 때에 따라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 35세는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나이. 『35세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30대에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을 항목별로 정리한 매뉴얼이다.

통통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필리포스 만딜라라스 글/엘레니 트삼브라 그림/정영수 역 | 책속물고기

놀이를 빼앗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책 속 배경이 되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 놀아 본 적도 없고, 놀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놀이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통통공’을 만난 아이들이 노는 게 무엇인지, 신나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적이나 돈이 아니라 즐거움과 웃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거꾸로 즐기는 1% 금리

프리모 레비 저/이현경 역 | 돌베개

한국에도 닥쳐온 1% 금리 현상, 여기서 살아남을 생존법은 무엇일까? 앞으로 초저금리를 감안하지 않은 재테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책을 쓴 저자들은 다년간 축적해온 데이터와 실제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1% 금리시대 세계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물구나무

백지연 저 | 북폴리오

앵커계의 전설이자 전문 인터뷰어, 『크리티컬 매스』 『뜨거운 침묵』 『자기 설득과 위』 등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백지연의 첫 소설. 줄곧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성공과 행복, 삶의 자세에 대해 논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허구의 형식을 통해 에세이보다 더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소위 ‘스타트가 좋았던’ 다섯 친구들의 인생을 27년 만에 타임캡슐처럼 열어보게 된 민수의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하정이에 대한 기억으로 완성된 퍼즐 역시 의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안인회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5949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민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당)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내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쿵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양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취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誠과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췌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성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쿼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K-마트	725 2122	산들(땅그랑)	5579 5821	종가집	8990 6956
위자야마트	726 9049	산타코리아	722 9921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식당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카사블랑카	8241 4949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상록수	8983 6047	코레아나	390 4568
가야성	725 7373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가효(Sudirman)	9127 2262	서라벌	572 3475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서울가든	(0361)768 323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강강수월래	380 5217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서울팔레스	(024) 447 414	태극관	822 7011
강촌(땅그랑)	5579 3681	소양(찌까랑)	897 2231	토담	521 0230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토박	725 1135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팔레스	5296 2001
고목(찌까랑)	897 3463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고인돌	452 5597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청기와	726 1924
고주몽	7279 6709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국일관	822 8974	시티서울	5289 7506	청해수산	739 7032
권명희복집	720 7464	신도시	897 3615	초가(가라와찌)	552 6043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아랑 22	5140 1245	춘하추동	5940 2846
기소야	574 7581	아랑갈비	8983 6047	팡팡치킨	720 7275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다리아분식	722 0276	아리아분식	722 0276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대감집	726 435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김삿갓	722 2230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하림각	551 8511
동해복집	720 7464	압구정	2905 2925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마포	7279 2479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한국관	720 7322
만나	821 5279	어울림	551 4853	한민족	725 2688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아마(땅그랑)	547 2722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어울(땅그랑)	551 4853	한솔	5290 3417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분가	739 6229	한양가든	521 2522
물레방아	8990 6956	우리들(땅그랑)	552 4047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목우촌	450 4155	울엄마	920 7244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함지박	739 6958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향수	645 2378
		장수대	726 4570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북공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6074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는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